



감염병 사태로 '비대면 온라인 문화'가 더욱 확산한 가운데 스타들의 온라인 강의도 호응을 얻고 있다. 래퍼 박재범과 엠넷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우승팀 홀리뱅(왼쪽 사진부터)이 온라인 강의 서비스 클래스101을 통해 자신들의 재능을 수강생들과 공유하고 있다. 사진제공 | 클래스101



박재범·송민호·홀리뱅... '랜선 강단' 선다

스우파 우승 홀리뱅 수강생 모집 내년 개강 앞두고 3200여명 몰려 가수 자이언티·기리보이도 참여 개인교습 하듯 오랜 노하우 전수

엠넷 '스트릿 우먼 파이터'(스우파)의 우승팀 홀리뱅이 댄스를 가르치고,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직접 랩 시범에 나선다. 스타들이 '선생님'으로 변신했다. 최근 가수부터 배우까지 다양한 분야의 연예인들이 노하우를 담은 온라인 강의로 팬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어디서든 쉽게 듣지 못한 이들의 '철학'까지 엿볼 수 있어 일반의 시선을 끈다.

●박재범·유병재 등 '분야 불문'

댄서 허니제이가 이끄는 댄스팀 홀리뱅은 최근 온라인 강의 서비스 클래스101의 수강생을 모집했다. 내년 1월5일부터 35편의 영상을 통해 다양한 스타일의 힙합댄스를 가르치는 강의는 현재 19만9500원의 적지 않은 수강료에도 벌써 3200여 이용자를 모았다. 일부 신청자는 "스우파"를 보고 춤에 관심을 갖게 됐다"면서 "초보자도 들을 수 있어 신청했다"고 기대 어린 댓글을 남겼다.

송민호와 가수 자이언티, 기리보이 등은 원터월을 통해 작사, 작곡, 랩, 프로듀싱 등 노하우를 공개했다. 실제 노래를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 수강생이 개인교습을 받는 듯한 느낌을 살렸다. 자이언티는 "내 이야기로 누군가에

게 공감을 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어 강의에 나섰다"고 밝혔다.

배우 하정우, 방송인 유병재,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등도 연기, 코미디 콘텐트 제작, 프로파일링에 관련한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해 화제를 모았다. 래퍼이자 힙합레이블 AOMG의 수장인 박재범은 "열정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클래스101을 통해 무료 강연을 열기도 했다.

●'전문성으로 승부'

스타들은 전문성을 드러내는 창구로 온라인 강의를 활용한다. 인터뷰, 방송 프로그램 등만으로는 자신들의 전문 지식과 경험담을 공유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영상은 물론 체계적인 커

리큘럼 제작인력을 갖춘 온라인 플랫폼도 이들을 '강단'에 서게 한다. 클래스101의 .3정화 홍보팀장은 21일 "이용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등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해 연예인들도 높은 만족감을 드러낸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하면서 각 온라인 강의 플랫폼은 스타 강의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온라인 교육 관련 상표 출원은 지난해보다 26.7%,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9% 늘었다. 권정화 팀장은 "스타 온라인 강의는 이용자 확보뿐 아니라 플랫폼 홍보에도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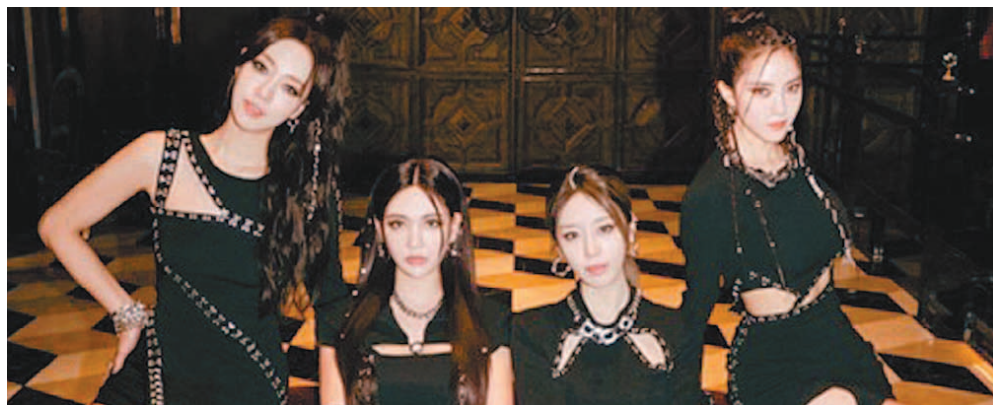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첫눈 오기 전 컴백" 약속 지킨 티아라

팬파티 열고 4년만의 새앨범 공개 "팬들 만나고파" 직접 제작비 모아 타이틀곡 '티키타카' '올 킬' 선봬

4인조 걸그룹 티아라가 마침내 4년 만에 가요계로 돌아왔다. 최근 새 앨범 '리:티아라'를 발표한 이들이 모바일 채널 당고와 손잡고 다시 뭉쳤다. 특히 네 멤버가 직접 제작비를 들여 앨범을 선보이면서 더욱 화제를 모은다. 무대에 다시 나서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던 만큼 이들의 향후 행보에도 팬들의 시선이 쏠린다.

21일 서울 광진구 유니버시아드센터에서 '티아라 2021 팬파티 하이 퀸스 리턴 오브 더 퀸'을 열고 돌아온 티아라는 2009년 데뷔해 '보핍 보핍', '너 때문에 미쳐', '롤리 폴리' 등 히트곡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



그룹 티아라가 2017년 이후 4년 만에 새 앨범 '리:티아라'를 내고 21일 무대에 돌아왔다. 왼쪽부터 멤버 은정·유리·지연·효민. 사진제공 | 당고

았다. 하지만 2017년 미니앨범 '왓츠 마이 네임'을 마지막으로 그룹 활동을 중단했다. 뒤이어 2018년 당시 소속사 MBK엔터테인먼트와도 전속계약이 만료되면서 멤버들은 서로 다른 소속사에서 드라마, 영

화, 솔로가수, 뮤지컬 등 개별 활동에 집중해왔다.

다만 이들은 "그룹을 해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룹 활동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후 4년 만에 새 앨

범을 내놓게 됐다. 멤버별 소속사가 달라 재결합과 그룹 활동 컴백을 둘러싸고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를 뛰어넘어 다시 무대에 나섰다.

그동안 티아라의 네 멤버들은 "더 이상 시간을 미루면 안 될 것 같다"는 (컴백에 대한)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팬들에게도 "올해 첫눈이 오기 전까지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면서 멤버들은 사비를 들여 당고와 공동제작 형식으로 제작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히트곡을 만든 유명 작곡가 조영수와 안영민과 손잡고 타이틀곡 '티키타카'(TIKI TAKA)를 만들었다. 이 곡과 함께 힙합 팝 댄스곡 '올 킬'(ALL KILL)도 더블 타이틀곡으로 내세웠다.

티아라는 당분간 온라인 위주로 음반 활동을 펼치면서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일정 기간의 활동을 마무리한 뒤 멤버별 개인 활동을 이어가면서 다음 앨범도 준비할 예정이다.

이정현 기자 annoy@donga.com

리메이크 바람 거센 'K드라마'

美방송사 'W' 리메이크 본격 착수
日선 '별에서 온 그대' 내년 방영
해외선 잠재력·독창성에 높은점수

'K(케이) 드라마'의 해외 영향력이 리메이크 제작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최근 다양한 한국드라마가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 리메이크되면서 현지 관심을 끌어 모으고 있다.

최근 미국 연예매체 테드라인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미국 방송사 The CW는 2016년 MBC 드라마 'W' 리메이크에 본격 착수했다. The CW의 모기업인 CBS 스튜디오가 4월 MBC와 판권 계약을 맺고, '엔젤 시티'(Angel City)라는 제목으로 제작 중이다. 극중 의사 한효주가 이종석이 주인공인 웹툰에 빨려 들어가 펼치는 판타지 이야기를 각색한다.

전지현 주연 SBS '별에서 온 그대'

(2013)는 내년 초 일본에서 리메이크돼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아마존프라임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2019년 영화 '기생충'은 미국 방송사 HBO의 오리지널 시리즈로도 제작되고 있다.

앞서 한국 콘텐츠의 해외 리메이크는 꾸준히 이어져왔지만, 최근에는 "한국 드라마의 리메이크"에 집중되는 흐름이다.

해외에서는 한국드라마의 '독창성과 보편성'에 높은 점수를 준다. '호텔델루나' 리메이크를 추진 중인 미국 제작사 스카이댄스의 빌 보스트 대표는 "복잡하고 반전이 많은 스토리텔링"의 한국드라마가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기대를 드러냈다. 영국 BBC는 작가 테일러 디올 럼블을 인용해 "한국드라마는 세계의 많은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요소"를 지녔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 ABC는 KBS 2TV '굿타이'(2013)를 리메이크해 최근 시즌5까지 제작하기도 했다.

유지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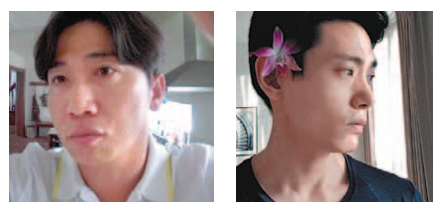
유세윤·유태오 '페이크 다큐' 내달 공개

'이상존재' 실체 쫓는 유세윤 그려
유태오 연출·촬영·편집 등 1인7역

스타들이 자신들에 관한 이야기를 감각적인 방식으로 꺼내 보이며 관객에게 다가선다.

개그맨 유세윤과 연기자 유태오가 '페이크 다큐멘터리' 영화를 12월 나란히 선보이며 솔직한 속이야기를 드러낸다. '페이크 다큐멘터리' 영화는 다큐멘터리 촬영 기법을 통해 영상 속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보이게 한다.

유세윤은 차진우 감독이 연출한 '이상존재'를 공개한다. '인기 개그맨 유세윤의 실존 영상 미스터리 영화'라는 컨셉트를 내걸었다. 유세윤은 자신을 둘러싼 '이상존재'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15일 동안 캠퍼더에 일상을 담아낸다. 개그맨이자 그룹 'UV'를 이끄는 가수로서 재능을 뽐내온 그



유세윤 유태오

가 10대 시절부터 겪어온, 기이한 현상에 힘겨워해 왔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꾸민다. 유태오는 직접 연출한 것은 물론 기획과 제작부터 촬영과 편집·음악 등 1인 7역에 나선 영화 '로고 인 벨지움'을 선보인다. 그의 감독 데뷔작이기도 한 영화는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벨기에의 한 낯선 호텔에 고립된 '배우 유태오'의 이야기를 펼친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화에서 유태오는 자신의 가장 사적인 모습으로부터 출발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오가며 스스로를 들여다본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연예뉴스 HOT 5

'스우파' 댄서 제트션 갑질 논란

엠넷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댄서 제트션(사진)이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제트션의 제자'라는 A씨는 19일 "과거 속옷 빨래, 전신마사지, 폭언 등 그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상에 올렸다. 이에 제트션은 "그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고 선생님으로서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도 "전신마사지 등은 서로에게 해줬다"는 등 "사실이 아닌 부분은 바로잡고 싶다"면서 20일 일부 의혹을 해명했다. 이에 A씨는 21일 "(함께)지내며 혼났던 이유가 정당하고 선생님으로서 진심으로 제자를 위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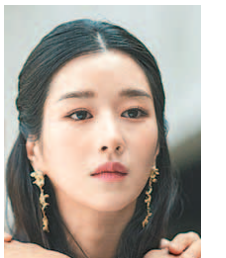


방탄소년단 '버터' 美 올해 최고 음반

그룹 방탄소년단의 '버터'(Butter)가 미국에서 올해 최고의 음반으로 뽑혔다. 21일 미국 매체 버라이어티가 '2021 히트메이커'를 선정할 가운데 '버터'를 '올해의 음반' 부문에 올렸다. '버터'는 방탄소년단이 올해 5월 선보인 앨범으로, 동명 타이틀곡은 빌보드 싱글 메인 차트 '핫 100' 1위에 오른 바 있다. 버라이어티는 '버터'가 "세계적 돌풍을 일으켰다"면서 "멤버 RM을 비롯해 작사, 작곡에 참여한 이들이 완벽한 히트작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22일 미국 LA에서 열리는 '2021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무대에서 래퍼 메건 디스텔리언과 '버터' 공연을 펼치기로 했지만 불발됐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시상식에 '올해의 아티스트' 등 3개 부문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사생활 논란' 서예지, 드라마로 복귀

과거 학교폭력 가해·스타프 '갑질' 의혹, 옛 연인 김정현에 대한 '조종' 논란 등 갖은 의혹에 휩싸였던 연기자 서예지(사진)가 무대에 복귀한다. 서예지는 21일 tvN이 촬영을 시작해 내년 상반기 방송하는 드라마 '이브의 스캔들'에 24일 처음 나선다. '이브의 스캔들'은 재벌가의 2조원 이혼 소송의 내막을 그리는 드라마로, 서예지는 주연으로 나선다. 서예지는 앞서 올해 4월 김정현의 소속사 분쟁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거 연인이었던 그에 대해 이른바 '가스라이팅했다'는 주장에서부터 학교폭력 가해·학력 위조, 촬영현장 '갑질' 등 갖은 의혹에 휩싸이면서 활동을 중단했다.



김종국 약물 의혹 제기 유튜브 사과

가수 김종국의 '로이더'(약물로 근육을 키우는 사람) 의혹을 제기한 캐나다 보디빌더이자 유튜브인 그래픽 듀셋이 결국 사과했다. 그래픽 듀셋은 20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종국과 팬들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김종국이 자신처럼 "HRT(호르몬 대체요법)를 사용"해 근육을 키운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종국은 도핑검사를 자청하며 이에 맞섰다. 그래픽 듀셋은 "(내 관련 주장을 담은)영상을 모두 내리겠다"면서 "김종국은 아마도 뛰어난 유전자들 가졌다"고 말했다.

진영, 내달 11일 온·오프라인 팬미팅

그룹 B1A4 출신 연기자 진영이 12월 온·오프라인 팬미팅을 연다. 진영은 12월11일 서울 신촌 연세대 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에서 팬미팅 무대를 펼친다. 글로벌 스포츠 모바일 플랫폼 틱톡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해 전세계 팬들과 만난다. 2019년 3월 '진영 인사이드 미:내안의 진영' 이후 약 2년 9개월 만이다. 진영은 올해 4월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됐다. KBS 2TV '경찰수업' 등 드라마에 출연하며 '좋아해, 아니 사랑해' 등 음악활동도 벌여왔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donga.com